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월 26일(목)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 높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 훈련과 집중 취업관리 등 필요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월 26일(목)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3156-7296 /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박성정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24 / 이메일: sjpark@kwdimail.re.kr)

---

#### <2011 연구보고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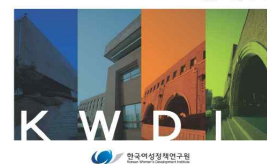
201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 방안

박성정 · 최금숙

◎ 연구책임자 : 박성정 연구위원

◎ 분야 : 경력단절/교육훈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고 공공 여성훈련기관들이 훈련제도 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요자중심적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은 훈련시간과 훈련과정 선택의 자율성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훈련참여를 제고하였지만, 한편 사회 및 직장생활 경험이 단절되어 훈련과 취업 정보에 취약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부적절한 훈련과 저조한 취업성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훈련 제도이나, 취업성과는 낮아짐.

- 훈련시간과 훈련과정 선택에 자율성이 큰 개인지원 훈련제도를 선호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투자에 소극적인 여성 특히 주부들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여성친화적인 훈련제도이기도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학습자를 전제로 하는 계좌제의 특성은 사회 및 직장생활 경험이 단절되어 노동시장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부적절한 훈련 선택과 저조한 취업성과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공공 여성훈련기관은 노동시장 수요가 낮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 취업지원 활동을 전략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어 왔음. 그러나 계좌제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훈련기관주도 취업관리체제가 약화되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성과와 과제(2008년 9월 22일 - 2011년 6월 30일 기준)



[그림]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 성별 훈련참여 비중 비교

주: 비중은 성별 각각에 대한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2011), 『직업능력개발 주요통계』.

○ 여성의 실업자훈련 참여는 증대하였으나, 참여여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약화됨.

- 전체 계좌 발급 및 훈련 참여, 훈련 이수자 중에서 여성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참여가 높음. 계좌제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훈련참여 기회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신을 위한 투자에 인식한 주부들에게 훈련비의 정부지원은 매우 중요한 훈련참여 동기를 부여함. 또한 훈련과정 선택권의 확대는 가사와 육아부담이 많은 주부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함. 그러나 비용 일부 자부담조차 주부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료훈련과정이 줄어 취약계층여성의 훈련참여기회가 축소되는 면도 있음.

- 계좌제의 목적은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좌발급자 가운데는 취업의사가 약한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음. 여성훈련기관들의 훈련생 선발권이 없어지면서 취업의사가 약한 여성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제와 상담기능이 약화되었음.

○ **여성직종훈련에 대한 자부담률 인상은 직종 편중 완화 효과가 있지만 여성참여를 제약할 수 있음.**

- 여성들은 계좌발급에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2010년 78.2%), 연령이 높을수록 음식서비스 관련직 발급비중이 높음. 일부 훈련분야의 자부담률을 인상하여 해당 분야에의 편중은 낮아졌으나, 그 결과 해당 분야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참여에 제약을 줄 수 있음.

○ **여성취업 형태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인정하여 취업성과를 제고할 필요.**

-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과는 기존 실업자훈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여성의 경우 취업률(2008.9.22~2009.3.15 시범사업 훈련수료자)은 20.3%(수료후 3개월 기준)~39.5%(수료후 12개월 기준)로 실업자훈련의 취업률(2009년 57.1%)보다 낮음.
- 계좌제훈련의 여성취업률은 물량배정식 실업자훈련 취업률보다 낮는데, 이는 여성취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업기준의 영향, 취업의사가 약한 여성들의 참여 증대가 원인으로 지적됨. 최근 법 개정으로 여성취업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더욱 유연하게 여성취업 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취업률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들이 주목받으면서, 여성선호 훈련분야를 크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계좌제가 변화하고 있음. 취업률 제고를 위해 여성직종 분야 훈련을

제약하는 방식보다는 계좌발급 상담 강화, 조기 취업 유인기제 마련, 경력단절여성 전문훈련기관의 취업지원 역량 활용 등의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 훈련과 집중 취업관리의 필요

- 경력단절여성은 일반 실업자에 비해 훨씬 취약한 집단임. 오랜 기간의 경력단절로 직업의식, 취업자신감, 훈련참여 역량 등이 매우 취약하여 단순한 훈련참여만으로는 취업에 이르기가 어려움. 밀착 지원이 어려운 계좌제과정만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제고에 어려움이 크고 여성직종에 대한 계좌발급도 제한되고 있어 특화훈련과정 운영이 필요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